



# 유로지역 재정위기 미국 대형은행으로 전이

유진아 연구위원

## 요약

■ 최근 그리스 부도 위험 확대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한 벨기에의 텍시아 은행에 대해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된 가운데 미국 대형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유럽의 재정위기는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. 금융 주변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기초여건이 양호하더라도 금융 핵심국의 유동성 충격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■ 그리스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가 당초 목표(GDP 대비 7.6%)를 초과한 8.5%에 달할 것으로 발표하였고, 이에 따라 IMF 6차 지원금 지급 결정이 연기되면서 그리스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
■ 그리스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파산위기에 직면한 프랑스계 벨기에 텍시아 은행에 대해 10월 4일 프랑스와 벨기에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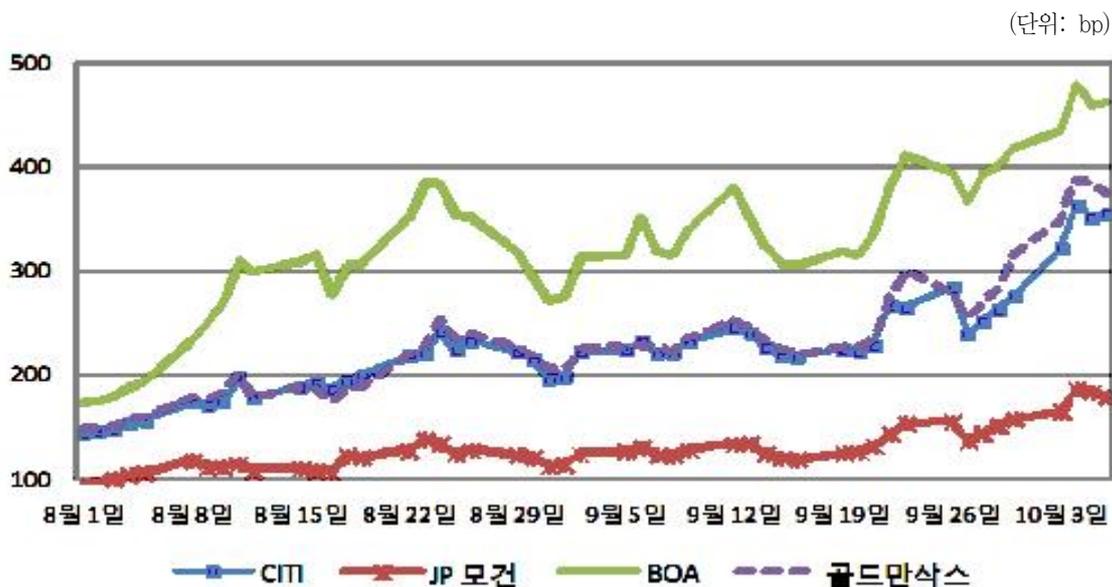
- 텍시아 은행은 자산 규모가 벨기에 GDP의 1.5배, 프랑스 GDP의 30%에 해당하는 대형은행으로서 227억 유로에 달하는 남유럽국가(PIIGS) 국채를 보유하여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음.
- 향후 텍시아 은행처럼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독일 총리 및 유럽 재무장관은 금융기관 자본 확충 지원 및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을 발표함.

■ 최근 들어 시티,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- 시티와 골드만삭스의 CDS 프리미엄은 각각 267bp와 275bp(9월 22일)에서 353bp와 385bp(10월 5일)로 급등함(<그림 1> 참조).

- 특히 BOA(Bank of America)의 경우 CDS 프리미엄이 460bp(10월 5일)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리만 브라더스 쇼크 당시(399bp)보다 높은 수준임.

〈그림 1〉 미국 대형은행 CDS 프리미엄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- 미국 대형은행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은 남유럽국가(PIIGS)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의 익스포저 (7,250억 달러)에 기인함(〈표 1〉 참조).

〈표 1〉 미국 금융기관의 PIIGS에 대한 익스포저

(단위: 억 달러)

구분		그리스	아일랜드	이탈리아	포르투갈	스페인	합계
직접 익스포저	정부	19.4	17.4	143.8	12.6	60.6	253.8
	은행	26.6	145.3	161.2	26.2	246.9	606.4
	기업	40.8	426.4	135.6	16.9	271.1	291.4
	<b>합계</b>	<b>86.7</b>	<b>589.2</b>	<b>440.6</b>	<b>55.9</b>	<b>579.1</b>	<b>1,751.7</b>
간접 익스포저	파생상품	10.4	79.9	186.0	16.3	61.9	354.7
	지급보증	370.0	487.5	2,228.6	475.0	1,399.4	4,960.7
	신용관련	3.0	29.2	65.7	25.5	84.0	184.8
	<b>합계</b>	<b>383.5</b>	<b>596.7</b>	<b>2,480.4</b>	<b>493.9</b>	<b>1,545.6</b>	<b>5,500.2</b>

자료: BIS Quarterly Review(2011).

- PIIGS 국가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의 직접 익스포져(foreign claims)는 1,751억 달러이고, 이 가운데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익스포져가 절반(815억 달러)을 차지함.
- PIIGS 국가에 대한 간접 익스포져(other potential exposures)도 5,500억 달러에 이르며, 이 가운데 지급보증(guarantees extended)이 4,96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함.

■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금융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 유출이 확대되고,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외화유동성 확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음.

-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미국 투자자의 자본비중이 각각 40%와 22%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유출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.
- 더욱이 우리나라 은행은 유럽은행으로부터의 외화차입에 의존한 외화공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화유동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.

〈표 2〉 외국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투자현황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	미국	영국	룩셈부르크	프랑스	기타	외국인 투자규모
주식	'10년 말	1,506,112	430,304	280,808	73,595	1,572,789	3,863,608
	'11.9월 말	1,370,869 (40.4)	335,679 (9.9)	234,423 (6.9)	37,233 (1.1)	1,412,301 (41.6)	3,390,505 (100)
채권	'10년 말	152,108	-	116,545	39,465	433,805	741,923
	'11.9월 말	184,346 (21.7)	-	139,376 (16.4)	21,810 (2.6)	505,222 (59.4)	850,754 (100)

자료: 금융감독원,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(2010).

■ 금융핵심국인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여파로 기초 경제여건이 양호하지만 금융주변국인 우리나라로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시장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위기대응 시스템(contingency plan)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 [kiri](#)